



2024 BETHEL THEME

MIGHTY GOD MIGHTY PRAYER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마가복음 11장 24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찬양채플, 온라인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비전109호,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크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만유의 주 앞에(찬26/새22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박성규 집사 2부/권조원 장로 3부/김건성 장로 4부/박양아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나는(편곡 David T. Clydesdale)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3부) Infant Baptism Zion Lim 임시은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역대하 7:13-16 Altogether 다같이
4부/히브리서 11:23-27
- 말씀 Message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MGMP(3)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Bend Our Church!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믿음 신드롬(10) 예수데이!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찬204/새288장)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Mighty God, Mighty Prayer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영국이라는 나라

Still Inspiring England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LA에서 10시간 비행해서 도착한 나라, 영국은 미국에 비해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집회가 있던 Wimbleton과 센트럴 다운타운을 오가면서 넓은 길은 거의 볼 수 없었고,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4월인데도 날씨는 추웠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이래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 바다로 나갔나?' 싶을 정도였고, 따뜻한 캘리포니아 날씨가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숨 쉬고 있는 나라에 와서 책에서 보던 곳을 친히 목격하면서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조지 뮐러(1805-1898)가 고아들을 위해 브리스톨(Bristol)에 시작한 보딩스쿨도 엄청난입니다. 흔히 고아원(orphan house)이라고 알고 있지만, 기숙사가 있는 크리스천 보딩 스쿨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당시 최고의 설계사를 통해서 한 건물에 400명에서 500명 수용하는 견고하고 실용적인 건물을 5개까지 지으면서 큰 캠퍼스를 이루고, 그의 평생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먹이고 재우면서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영국의 소망을 이어가며, 미래를 위한 일꾼으로 키워가는 일은 지금도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엄청난 일을 조지 뮐러는 기도 로 이루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은 한국의 평양 대부흥의 도화선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회하던 토마스 목사님은 37년간(1847-1884), 하노버 교회를 목회하면서, 둘째 아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를 안수하여 중국으로 파송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임신한 아내를 질병으로 잃어버린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를 파송한 런던 선교회에 사표를 내고 중국에서 통역관으로 지내다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당시 쇠국정책으로 문을 굳게 닫아 둔 한국 선교를 위해 토마스 선교사는 런던 선교회에서 재가입을 신청하고, 백령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 27세의 나이에 제너럴셔먼호를 타고 재차 한국에 들어 갔지만, 결국 성경책만 나누어 주고 순교한 것입니다. 한편 허무한 죽음 같고, 안타깝기 그지 없지만, 한국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 토마스 목사와 그의 가족, 그리고 하노버 교회가 얼마나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순교한 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공식적인 첫 선교사로 1885년 부활절에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거의 20년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는 한해 전까지 목회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 기도는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닌, 응답으로 찾아와 20년 만에 한국 선교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바로 지금 하노버교회의 담임목사가 한인 목사님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복수극에 찬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The UK, a 10-hour flight from LA, is a small island nation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It was a country that doesn't feel very large.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Wimbledon and Central Downtown, where the revival took place, there are hardly any wide streets, and it felt as if one was driving through narrow alleys. Even though it was April, it was cold, and the wind was blowing hard, so the temperature felt even colder. 'Perhaps, that may be the reason why they went out to the sea to conquer other countries?' I missed the warm California weather. Nevertheless, I am humbled each time I visit different countries where the history of that nation is still alive and breathing; having witnessed with my own eyes, the places I had visited only through books.

The boarding school project started by George Müller (1805-1898) in Bristol for orphans is also extraordinary. It is commonly known as an orphan house, but with dormitories,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think of it as a Christian boarding school. With the help of the best architects at that time, he built up during his lifetime five sturdy and practical buildings that accommodate 400 to 500 people in each building, forming a huge campus that provided food and lodging for more than 10,000 students for religious instruction. This ongoing project of raising up the leaders of the future continues today. It is the continuing hope of England, a monumental work, which George Müller was able to accomplish through prayer.

The revival in Wales ignited the spark for the great revival in Pyongyang, Korea. Pastor Thomas, who served the church in Hanover for 37 years, from 1847 to 1884, installed his second son, Robert Thomas as a missionary, and commissioned him to China. After losing his pregnant wife to illness in China, Thomas resigned from the London Missionary Society and served as an interpreter in China. Then when he had heard stories about Korea, his heart began to rekindle. Missionary Thomas reapplied to London Missionary Society to seek entrance to policy of Isolation of Korea. Later, at the age of 27, he entered Korea again on the ship named General Sherman, but in the end, he was martyred only being able to supply the Bibles. On one hand, it seems like a futile death for losing Missionary Thomas. But can you imagine the immense and fervent prayers for Korea by his father Pastor Thomas, and by the Hanover church community? After the martyrdom of Missionary Thomas in 1866, one can only imagine how the church in England burned with fire in their heart to evangelize Korea for near 20 years. And finally, Underwood and Appenzeller officially reached Korea on Easter Sunday 1885 as the first officially recognized missionaries. Considering that Thomas' father had been pastoring until a year prior to his death, his prayers were not in vain, but it was an answer that opened the door for the great commission to Korea for the first time in 20 years. How can Korea repay this debt? Seeing that the senior pastor serving the Hanover Church today is a Korean pastor, I praise and honor God's righteously directed divine vengeance drama.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Bend Our Church!

(대하 7:13-16)

1.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신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13절)

2. 1904년 웨일즈 부흥의 주역 이반 로버츠는 '나를 굽복하소서(bend me)' 메시지에 은혜를 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언제 이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나를 흔들었던 메시지 중 지금도 기억하는 설교가 있나요?

3.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14절)

1) _____

2) _____

3) _____ (참고/ 민 6:24-26)

4. 기도 응답의 근거는 무엇입니까?(15, 16절, 참고/요 14:13-14)

적용하기



목요 저녁 기도모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



베델 기도팀에서는 지난 3월부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를 원하시는 베델 성도님들을 위해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기도로 모이는 '목저기'는 기존의 목사님, 또는 사회자 중심으로 기도를 인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오직 개인 개인이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교제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현장사역입니다.



개까지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5월까지의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저녁에만 진행하도록 하였고,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모임 횟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사역들이 각각 목적에 맞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개인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간절하고 깊게 나아가는 모임이 없기에 올해 3월부터 목저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비전 찬양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자나 개인 방식 등 형식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저녁 늦게까지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모임을 몇 번 가지지는 않았지만 한분 한분, 종종걸음으로 오시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에 기대와 설렘 그리고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몇 시간씩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었다는 성도님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목요 저녁 기도 모임, 목저기를 통해 나의 간절함을 주께 토로하여 내 안을 비워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간절한 소망들로 가득 차고 평강이 넘치는 베델의 가족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용중 집사



QTM 사역

1. QTM 사역팀의 사역 목적은 무엇인가요?

온 가족과 교회가 같은 본문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는 꿈을 가지고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큐티 무브먼트의 마중물이 되고자 큐티엠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말씀에 끌려가는 것이기에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돕는 일이 사역의 주된 목적입니다.

2.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주된 사역 중 하나는 한글 교재를 영어로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입니다. 영어권 성도님들과 영어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자녀들이 부모님 세대와 같은 본문으로 가족이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것을 돕기 위한 번역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습니다. 총 4가지 교재(새싹,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장년)의 번역 작업이 끝나면 한국에서 인쇄되어 미국으로 보내지게 되고 베델교회 성도님들과 미주의 다른 한인 교회들로 배송하고 보급하는 사역에 정 목사님을 중심으로 두 분의 간사님들과 여러 봉사자분께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외부로 배송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어서 매달 배송 작업에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교회 카페에서 교재 판매와 정기구독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 9명의 헌신된 봉사자분들이 매 주일 수고하고 계십니다.

3. 기쁘고 보람된 순간은?

자녀들을 위해 교재를 구입하러 오는 성도님들을 볼 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진리의 문제를 투표로 결정

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20~30년 후의 베델교회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하기에 애쓰시는 부모님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4. 성도들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씀은?

말씀을 통해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보다 복된 일이 있을까요?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큐티 교재를 펼쳐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직 망설이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문의: 김언조 집사 (714)333-6724

새생명축제 스케치

빛속의 축제 현장



VIP들을 맞이하는 새생명 축제의 날, 많은 비가 내려 걱정을 했는데 그러한 염려가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오는 젊은 부부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자녀들, 조심스레 권했는데 기꺼이 초대에 응한 회사 동료분, 부모님의 권유로 온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러한 새생명들이 빛속에서도 우산을 쓰고 주님 앞으로 오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금요일부터 새생명 축제 팀장님을 중심으로 드링크팀, 서빙팀, 샌드위치팀, 접수팀, 쇼핑백팀, 달걀팀, 데코레이션팀 등 여러 사역팀들이 함

께 참여해서 준비했습니다. 건강에 좋은 재료로 만든 따뜻한 수제차와 알록달록한 에이드 등을 준비하고 연령대에 맞는 여러 종류의 예쁜 메뉴판을 준비하여 VIP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당일 교회 입구에서부터 접수를 맡은 성

도님들의 따뜻하고 친절하고 나비넥타이를 메고 행복하게 서빙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 좋았다고 VIP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VIP 식사로 'Blessing 복음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베델교회 시그니처인 김밥과, 손수 만든 샌드위치, 신선한 과일과 간식 등 다양한 음식들이 정성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VIP들을 인도자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여 함께 교제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영접하도록 하였고, 각 목장의 담당 목사님과 연결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가족 바나바팀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베델교회의 등록 교인이 되게 돕도록 하였습니다. 빛속에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과정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 받을 자들로 훈련하시는 과정 같았습니다. 또한 1월부터 정해졌던 VIP 선물이 마침 우산이었던 것은 이 새생명 축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제였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우리가 드린 우산 선물을 펼치고 비를 피해 가시는 VIP들 모습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섬김의 분이 된 교회의 얼굴 베델 성도들, 천하보다 귀한 VIP 영혼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역동적인 새생명 축제의 현장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베델뉴스팀

교회학교 부활절 간증

십자가의 사랑과 비워진 무덤

K-1에서는 고난주간 예배에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큐티인을 통해 큐티를 하며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타는 햇불 그림 안에 자기의 죄를 그려보거나 적어보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가리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께 거짓말한 것, 동생을 때렸던 것 등등 써내려 갔어요. 마지막에 내가 적은 죄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내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니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큐티를 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가영 전도사

유년부에서는 의미 깊은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활절 몇 주 전부터 전도사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Praying, Fasting, Sharing을 지켜가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던 아이들은 부활절 당일 학부모님들이 정성껏 장식해 주신

예배실에서 열심히 연극을 준비한 TA 선생님들의 연기에 웃음을 터뜨리며 즐겁게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준비한 게임들과 컵케이크를 이용한 크래프트를 통해 아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하고 기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법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늘 새로운 아이디어와 내용으로 유년부가 하나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보영 집사

초등부는 지난 고난주간을 기도와 함께 보냈습니다. 아직 기도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Jesus"를 외치며 회개기도와 구원기도를 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 어색하게 기도를 시작하며 저린 다리 때문에 불평불만하던 친구들이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길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고난주간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주신 새 생명을 생각하며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 몇몇 아이들은 자신들의 VIP를 데려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매 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마다 아이들은 깊은 십자가 사랑과 비워진 무덤을 통해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정연 전도사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사랑목장에 속해 있는 저희 에바다 2셀은 2018년 5월 에바다 셀에서 분가하여 네 가정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10가정, 18분이 계십니다. 75세에서 85세의 연로하신 분들이시지만 모두 건강하시고 성품과 믿음이 좋으시며 배려하는 마음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셀을 위해서 모두 너무나 잘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니다.

저희는 매주 1부 예배 후에 교회학교 교실에서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COVID가 한창이었을 때에도 zoom을 이용해서 셀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찬송과 기도 후에 말씀을 나누는데 기도와 말씀을 나눌 때는 모든 셀 식구들이 참여하십니다. 주로 설교 말씀을 되새기면서 회개도 하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각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셀 식구의 나눔을 통해 배우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간혹 셀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일이 있는 경우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 드리고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하며 축하해 드립니다. 모두 은퇴하고 오신 분들이라 세상 얘기도 하고 싶고 자녀들, 손주들 자랑도 하고 싶지만 셀 모임에서

는 일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또한 자주 셀 단합대회를 통해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특별히 축하받을 일이 있는 셀 가족이 있는 경우와 생일인 경우에는 함께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식당에서 각자 부담으로 음식을 나누며 친교를 하기도 하고 각 가정으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꽃이 필 때는 산으로 하이킹을 가고 시원한 바닷가에서 교제를 나누며 거닐기도 합니다.

저희는 매 주일 함께 모여 화기애애한 가운데 셀 모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즐겁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에바다 2셀 식구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셀 식구 한분 한분이 건강하시길, 또한 베델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근웅 장로, 이가인 권사

선교사 간증 시리즈(2)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저희는 2016년부터 현지교회, 청년 사역, 지진 피해 난민 사역을 섬기고 있으며 동시에 2023년에 있었던 지진피해 이재민을 돕고 있습니다. 문화 사역을 통해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젊은 층에게 복음을 전해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젊은 교회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 베델교회에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사역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중 이슬람권에서 오신 선교사님께서 무슬림(이슬람을 믿는 성

도들을 호칭)에 대해 나누어 주셨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지식, 감정, 의지가 동반하여 공감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에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슬림들이 있는 곳에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감사하게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튀르키예를 오고가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1년 베델교회의 파송으로 2년 인턴 선교사로 파송 받고 튀르키예로 갔다가 평생을 함께 동역할 아내를 만나 2013년 베델교회 정식 풀타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다시 튀르키예로 돌아와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장과장/주별매 선교사(T국)

- T국 단기선교: 10월 22일(화)-31일(목)
- 문의: 김효선 집사 (914)501-3594

기도해 주세요

1. K 도시에 있는 현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하루빨리 합법적인 등록과 절차를 통해 모임 장소를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3. 섬기고 있는 지진피해 이재민과 난민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4. 지진피해 이재민 센터와 문화 4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 함께 협력하고 있는 두 가정이 자금처럼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잘 동역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6. 자녀 연약이가 예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이흥경 목사
-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 소망/전도폭발/시니어: 주성필 목사
- 화평/선교/BAM: 김홍식 목사
- 신혼부부/찬양/셀: 박경철 목사
- Joy/통역/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 은혜/예배/온라인/OICOS: 서동민 목사
- 믿음/이웃사랑: 강솔로몬 목사
-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교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강수연 전도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영어중등부: 이사라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영어고등부: 최소영 전도사
- 한어중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밀 파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 예삼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중희, 김앤드류(인턴)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조수민(인턴)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KCC 워싱턴 DC 미션 인턴리더십 학생및 봉사자 모집

KCC 워싱턴 DC 미션 사역은 잠언 31장 8절 말씀처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 지니라"라는 명령에 따라, 북한 동포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세상에 알리고 돕는 사역입니다. 매년 7월에 80여 명 2세 중고등학생 선교팀과 성인 봉사자와 목회자들이 워싱턴 DC로 가서 고통받는 북한 동족과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미국 대통령과 상원의원, 하원의원에게 전달합니다. 그동안 우리 2세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북한 동족과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법안이 통과 되게 해달라고 호소하였고 지금은 그 법안들이 통과되어 수많은 북한 난민과 아이들이 새롭고 더 나은 삶을 시작 하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자라난 한인 2세들이 북한 선교사역을 통해 Korean-American 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워싱턴 DC에서 이루신 사역들을 체험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 사역입니다.

매년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2세들의 미국 정부를 향한 호소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을 통해 큰 기적을 주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2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고 학교에서 북한 실정을 알리는 클럽을 만들기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선생님의 감동적인 기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2세들을 지원하기 위해 봉사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북한 동족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7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3박 4일간의 인턴쉽 미션 컨퍼런스의 봉사자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더운 워싱턴 DC에서 2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 7월 8일(월)~7월 11일(목)

▶ 문의: 김건성 장로 (949)690-7697, Sam Kim 장로 (714)928-8582

<참가자용(2세)>

<봉사자용(1세)>

예배 봉사자

주일에배 대표기도(4,5월)	4/21: ①부-마상오	②부-곽태일	③부-김근수	④부-윤지섭
	4/28: ①부-김학남	②부-김명수	③부-박성남	④부-임제이스
	5/5: ①부-김병찬	②부-김백열	③부-김병주	④부-장인상

헝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4,5월) | 4/20: 심진규 4/27: 양승화 5/4: 정승우 5/11: 최글렌

강단꽃(4,5월) | 4/14: 황지은 4/21: 노성애, 육상운, 조미리 4/28: 예삼, 이다원 5/5: 노성애, 이희정, 황은아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혜선(소아과), 간호사-장한나 다음주 | 의사-오세영(한 의사), 간호사-황선영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버나버(옥소리),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기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수요일예배 이번주 수요일예배는 박성권 목사께서 'Bitter or Better' 시리즈 (2): Better Offering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현장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드리지며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방영됩니다.

◆ 성인세례/입교식 안내 성인세례 및 입교식이 5월 19일 주일 예배 3부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들은 세례 교육 및 문답을 수료해야 하며 CIM, BYM, 예삿, JM, 소망부는 각 부서에서 교육을 진행하오니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오늘 주일(14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와 사무실에서 신청가능
성인 세례 및 입교식: 5월 19일(주일) 3부 예배 시
세례 자격: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및 베델교회 등록교인(6개월 이상 출석)
입교 자격: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교육 일시: 4월 21일(주일), 4월 28일(주일), 5월 5일(주일) 오후 12시 30분
교육 장소: 컨퍼런스룸(본당 2층)
문답 일시/장소: 5월 12일(주일) 오후 1시 30분, 목회자실

◆ Let's Be Family! (오늘부터 가족!) 설명회 '야나(YANA)'와 협력하여 여름 VBS 기간에 한국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과 우리 교회 가정을 1:1로 연결하여 아이들에게 온전한 가정에서 지내는 기쁨을 맛보여 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설명회 일시/장소: 오늘(14일) 오후 1시 30분, 할렐루야 채플
섬김 기간: 6월 14일(금)-6월 23일(주일)
섬김 방법: 홈스테이, 재능, 물질 기부 등 다양한 방법
문의: 본당 앞 부스, 노경희 권사 (714)356-5988

*야나(YANA)는 'You Are Not Alone'의 머리글자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너는 혼자 아니야'라는 메시지와 희망을 주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 제98차 베델동산 모집 베델동산이 개최됩니다.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쁨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도 모집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5월 24일(금)-26일(주일)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석승진 집사 (949)232-0872



<참가자용>

<봉사자용>

◆ 베델 기도사역 Mighty God, Mighty Prayer!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목요 저녁 기도 모임(목저기)] 일시/장소/준비물: 4월 18일(목) 저녁 7시-10시 30분 (자율귀가), 비전채플, 개인방식

[연합 기도회] 일시/장소: 4월 20일(토) 헬시바 예배 후 오전 7시 30분, 유년부실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교회학교 VBS 등록 2024 VBS가 'The Great Jungle Journey'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등록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대상: 영아, 유아, Kinder-5학년(K-1, 유년부, 초등부)
등록 기간: 4월 1일(월)-4월 14일(주일)
VBS 기간: [영유아부] 6월 11일(화)-14(금), [K-5] 6월 18일(화)-22일(토)
등록처: 베델교회 홈페이지(bkc.org)

◆ 선교 바자회 도네이션 5월 11일(토)에 열리는 선교 바자회 "다음세대"를 위한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모여진 수익금은 베델 다음세대 선교를 위해 지원됩니다.
기간/장소: 4월 한 달간, 본당 앞 부스
문의: 김응진 집사 (213)215-4977

◆ GMMA 봉사자 모집 2024 GMMA National Missions Conference가 열립니다. 이를 위해 봉사자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베델 교인에게는 조기 등록 특별할인 50%(조기등록 마감 4월 15일)가 적용됩니다.
주제/기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6월 28일(금)-29일(토)
문의: 오세영 장로 (949)892-9929, www.gmma7.org

◆ AWANA 리더 모집 어린이들을 섬겨주실 리더로 섬겨주세요. 영어로 간단한 대화를 할 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기간/시간: 현재-5월 31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문의: 위우정 간사 (714)423-4813, awana@bkc.org



◆ 보청기 및 통역기 시스템 셋업 각 예배 후에 코트야드에서 보청기 및 통역기 시스템 앱 설치와 셋업을 도와 드립니다.

◆ 기도해 주세요 오늘부터 4월 22일(월)까지 베트남(선교사: 성결/양선)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축하해 주세요
- 예삿 정하는 자매와 이대산 형제의 결혼식이 4월 13일(토)에 있었습니다.
- 오늘(14일) 3부 예배에 임준현/이지에 집사의 아들 임시온(Zion)의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박홍철 집사님(박영숙 권사의 남편)께서 4월 9일(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故 이순식 성도님(박정훈 집사의 모친/박필연 집사의 시모)께서 4월 10일(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Table with 3 columns: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Contains details for AWANA, Sparks, Truth&Training, and church news editors.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Lord, Heal Us, Bend Our Church!

(2 Chron 7:13-16)

1. Have you ever felt like God is calling on you to 'Pray to me'? When was the last time you felt a need to pray? (v. 13)

Apply to Life



2. Evan Roberts, the leading figure behind the Welsh Revival in 1904, began his ministry upon hearing the message with words "surrender me, bend me". When have you experienced such spiritual revival in your life? Do you recall or remember any sermon that shook you to the core?

3. Let us put together a prayer with contents that God would want to hear from us, and let us pray for them. (v. 14)

1) _____

2) _____

3) _____ (Ref: Num 6:24-26)

4. What is the basis for our prayers answered? (v. 15-16, Ref: John 14:13-14)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